***Session 7: Jesus’ “Training Manual” for Pressure and Success (Jn. 13-17)* 제 7 강: 압력과 성공을 위한 예수님의 “훈련 매뉴얼” (요한복음 13-17)**

1. From upper room discourse to upper room outpouring
다락방의 담론에서 다락방 성령의 부어짐까지
	1. Initially, Jesus spoke John 13-17 to the leadership of His new Church to *prepare His disciples to thrive spiritually and emotionally* in the face of the pressures they would encounter as new leaders in the kingdom. Jesus understood what Hi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would mean regarding the pressures and promises that awaited His disciples in the future. As the Good Shepherd and the Chief Apostle, Jesus wisely built into their framework of understanding the necessary tools, perspectives, and truths that would equip them to withstand the complex dynamics that awaited them in the future. Before Jesus went to the Cross, He equipped His friends to bear the weight of the demonic attacks, human rage, notoriety, suffering, and success that would follow them into their next season of life and ministry.
	처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17장을 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왕국의 새 지도자로서 직면하게 될 압박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부활, 승천이 앞으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압박과 약속들에 관하여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자 으뜸 되신 사도로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복잡한 역동성을 견디어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 관점, 진리를 이해하는 틀을 현명하게 구축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분의 친구들이 악한 영의 공격, 인간의 분노, 악명, 고통, 성공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인생과 사역의 다음 시즌에 따라오는 성공을 준비시켜 주셨다.
	2. What was it to “follow the Cross”? Each “phase” of what was about to happen would be very costly and disruptive for the disciples who had fastened their names, reputations, livelihoods, and relationships to Jesus and His earthly ministry and future promises. Jesus understood that His “temporary defeat” would be followed by His surprising victory and resurrection. After this would come the subsequent empowering of His disciples in the Upper Room of Acts 1-2. In the process, the unfolding drama would embolden His enemies, then stoke their rage and resistance, ultimately leading to great persecution and pain. What would be the source of that persecution? It would come at the hands of the political and religious leaders who would seek to maintain the present power structures that enabled them to be influential and enriched by the present societal order.
	“십자가를 좇는 것” 이란 무엇인가? 곧 일어날 일의 각 "단계"는 자신의 이름, 명성, 생계, 그리고 관계를 예수님과 지상 사역 및 미래의 약속에 고정시켰던 제자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며 파괴적인 것이 될 것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시적인 패배”가 놀라운 승리와 부활이 뒤따를 것임을 아셨다. 이후에, 사도행전 1-2장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능력을 부여 받을 것을 아셨다.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는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어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큰 핍박과 고통으로 이어졌다. 그 핍박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이 현 사회 질서에 의해 영향력을 미치고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하는 현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3. Jesus laid the “tracks” of the Upper Room Discourse strategically to prepare His friends for *everything* that they were about to experience. This included the complex spiritual, political, and social, and economic dynamics of the Cross, resurrection, and explosion of His new movement across the Roman Empire. This means that Jesus labored to equip them to withstand the pain of ***suffering*** and persecution as well as the disruption and difficulty of ***success*** and revival that was to follow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n Jerusalem, Judea, Samaria, and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Success, revival, growth, authority, and breakthrough involve dynamics as complex and as difficult to navigate with humility and lowliness of heart as persecution and suffering at the hands of those who would be impacted negatively by the success of the young movement.
	예수님은 친구들이 곧 경험하게 될 **모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다락방 담론의 “트랙” 을 놓았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잡한 영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다이나믹, 그리고 부활과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그분의 새로운 운동의 폭발을 포함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의 고통에 맞설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성령의 부어짐에 따라 오게 될 부흥과 **성공**의 혼란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수고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 부흥, 성장, 권세와, 돌파는 청년 운동의 성공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손에 가해지는 박해와 고통만큼이나 복잡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탐색하기 어려운 역동성을 포함한다.
	4. Jesus looked to establish His friends and the leaders of this young movement into sustained, profound peace, life, and joy necessary to overcome the ***internal*** threats as well as the ***external***: fear, troubled hearts, disillusionment, disorientation, discouragement, offense, betrayal, failure, and shame. The desire of Jesus is that His joy *remain* in us ***and*** that our joy would be *full* (Jn. 15:11).
	예수님은 **외부**의 위협 뿐만 아니라 두려움, 근심되는 마음, 환멸, 방향성 상실, 낙담, 마음 상함, 배신, 실패, 그리고 수치심과 같은 **내부**의 위협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속적이고 깊은 평강, 생명, 기쁨으로 자신의 친구들과 이 청년 운동의 지도자들을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님의 갈망은 그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요 15:11).

11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My joy may remain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full. 12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Jn. 15:11-12)
11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12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1-12)

* 1. Forging a deep connection with sustained joy that grows through the “storms” of disappointment, persecution, and fulfilled promises is critical to endurance and longevity in our calling. How can we press on through the difficulties and pressures ahead and not lose our way?
	실망, 박해의 “폭풍” 을 통해 자라는 지속적인 기쁨을 가지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성취된 약속은 인내하며 우리의 부르심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길을 잃지 않으면서 앞의 어려움과 압력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1. The cross: the storm of disappointment and disillusionment
십자가: 실망과 환멸의 폭풍
	1. The disciples of Jesus are our most pronounced picture of Jewish expectation of Messiah, the Messianic era, and what it might be like to live in the era of fulfilled promises and expectations of what Yahweh would do to establish Israel in her full destiny, restore the House of David, and bring forth the humiliation of the Gentiles and their constant oppression of the Jewish people and Jerusalem. The disciples give us a clear picture of the selective way we understand our own promises and destinies in God related to our future. We project our own unfulfillment, discontent, and ambition onto our promises, only to come face to face with the Cross of Christ and the way God brings forth His promises and our destiny. The future is not likely to unfold in the way that we think it will, and the complexities of the days ahead will challengewhy we persist in our faith.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 대한 유대인적 기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가장 뚜렷한 그림이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한 운명으로 세우기 위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성취된 약속들의 시대에 사는 것이 어떨지, 다윗의 집을 회복하고 이방인들의 굴욕과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의 끊임없는 압제를 불러일으킬 것의 그림들이다. 제자들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약속과 운명을 이해하는 선택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완성, 불만, 야망을 우리의 약속에 투사하지만,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대면하게 될 뿐이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날의 복잡성은 우리가 왜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가에 도전할 것이다.
	2. Will we seek God if things do not work out the way that we thought that they would? Will we be His when we cannot feel His presence? **Will we love and trust Him when we are disappointed by circumstances?** We must work our “faith muscle” as the way to re-align our heart to grow in love through difficulty. **When we do not feel His presence or when circumstances are difficult, our first tendency is to be depressed or to complain**. As we engage in the “Trinitarian Conversation,” we ask the question, “Why do we feel this way?” In this, we re-align our hearts with the truth that we are His inheritance and are in it for love.
	일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것인가? **상황에 실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 사랑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재정렬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의 첫 번째 경향은 우울하게 되거나 불평하는 것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대화” 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느낌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며 사랑을 위해 그 안에 있다는 진리에 마음을 재정렬하게 된다.
	3. This distorted, self-centered, and prideful lens by which we view our sovereign promises and potential destiny are not a point of *disqualification* to Jesus and His stewardship of our future in Him. In fact, He seeks to connect the disciples to the perspectives and themes that will re-align their hearts and lives towards joy in abiding in His love and affection *through* failure and disillusionment. Meaning, Jesus does not seek to spare them from the pain and disappointment to come when things do not turn out the way that they thought, or the promises are not fulfilled in the way that they assumed. Rather, Jesus equips them to abide in His love, giving them the means to cling to something ***stronger than the pain and disillusionment*** of the Cross and their own failures and betrayals.
	우리가 우리의 주권적 약속과 잠재적 운명을 보는 왜곡된 자기 중심적이며 교만한 렌즈가 예수님과 그분 안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분의 청지기로서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 그분은 실패와 환멸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애정 안에 거하는 기쁨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과 삶을 재정렬할 관점과 주제에 제자들을 연결시키려고 하신다. 즉, 예수님은 일이 그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거나 약속이 추측한 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닥칠 고통과 실망에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실패와 배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환멸보다 더 강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수단인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준비시키신다.
	4. ***How*** does Jesus equip them to lay hold of abiding joy in the face of great disappointment?
	예수님은 큰 실망에 직면 할 때 기쁨을 붙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키시는가?
		1. **John 13:** He calls them to ***serve and to fight for one another*** (which they express for the sake of Peter in John 21:3 – “*We are going with you also*.”).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은 그들을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싸우라**고 부르신다 (요21:3 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라고 표현했다).
		2. **John 14:** He calls them to ***believe in Him and His promised outcome*** by ***continuing to keep His commands*** (rather than forsaking His truths in despair).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과 그분의 약속된 결과를 믿도록** 그들을 부르신다 (절망하여 그분의 진리를 저버리지 않게 하신다).
		3. **John 15:** He calls them to ***abide in and express His love***, laying down their lives for one another as they put His love on display to a world that will hate them.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부르신다.
		4. **John 16:** He calls them to ***engage with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 will speak, declare, and minister to them during great sorrow, pain, and judgments difficult to bear.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은 큰 슬픔과 고통, 견디기 힘든 심판 중에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운행하실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라**고 그들을 부르신다.
		5. **John 17:** He ***prays for them (and for us)*** which is to be a source of profound comfort and security during disorienting attacks of the evil one (17:15) and the almost unbearable rejection and pressures of the world (17:16) unto profound unity, together enjoying the full measure of His fiery seal of divine love (17:26).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은 깊은 위로와 안전감의 근원이 되는 것을 **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악한 자의 혼란스러운 공격 (17:15)과 세상의 거의 견딜 수 없는 거절과 압력 (17: 16)을 받는 동안에 깊은 연합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의 인치심의 충만한 분량을 함께 누리도록 (17:26) 기도하신다.
2. The resurrection and outpouring of the spirit: the storm of success
부활과 성령의 부어짐: 성공의 폭풍
	1. The beauty of Jesus’ “road map” to acquire a heart ***“rooted and grounded”*** in His fiery love and affection – a love that dramatically transforms our perspective, what we live for, and how we love one another – is that is has the corresponding ability to anchor our hearts during the profound disruption and disturbance of ***fulfilled promises***.
	예수님의 불 같은 사랑과 애정, 즉 우리의 관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그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마음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로드맵”의 아름다움은 **성취된 약속**의 심오한 혼란과 혼란 중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
	2. By engaging in the “Trinitarian Conversation” with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we are laboring by grace to anchor our soul into the superior pleasures or *exhilaration* of engaging in the love of the Godhead. Our life goal becomes Song 1:4, “*Draw me away, and I will run*”, making the first commandment and the love of Jesus our highest ambition and dream. Jesus understands that a sustained pursuit of the superior pleasure of His love and affection will wash and transform us from within, shifting how we think, how we spend our time, what we value, honor, and cherish, and more.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대화” 에 참여함으로써, 신격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더 높은 즐거움이나 **환희**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은혜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가서 1:4절 “**나를 당신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면 달리겠습니다**”처럼, 첫째 계명과 예수님 사랑을 최고의 열망과 꿈으로 삼는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과 애정이라는 탁월한 기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 우리의 생각과 시간, 가치 있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등을 변화시켜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씻고 변화시킬 것임을 이해하신다.
	3. The Father’s desire is to set us on a journey that leads to us being lost in the vast ocean of His love and the deep pleasure and satisfaction He derives from His union with us. The promise of the “fiery seal of Divine love” and the pleasures we can experience in His transcendent affections put the promises and purposes of God into right priority and perspective. There is no fullness of joy to be experienced in ministry success, rather, ministry success and the disorientation that can follow become a test for our true devotion and loyalty. Are we truly grounded and fastened to the promise and glory of the gospel? Have we truly reckoned with the stunning implications of our union with Christ and the interior pleasures that are now ours to explore?
	아버지의 갈망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깊은 기쁨과 아버지와의 연합에서 얻어지는 만족이라는 광대한 바다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여정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신성한 사랑의 불의 인”의 약속과 그분의 초월적인 애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은 우리로 올바른 우선순위와 바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두게 한다. 사역의 성공에서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 오히려 사역의 성공 이후 뒤따르는 방향성 상실은 우리의 진정한 헌신과 충성도에 대한 테스트가 된다. 우리는 복음의 약속과 영광에 진정한 기초를 두고 굳게 붙어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의미, 우리가 이제 탐구하는 내적 즐거움의 놀라운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았는가?
	4. There is deep pleasure and profound joy to be experienced in *union* and *communion,* or fellowship with the Spirit and with the brethren, that can awaken and satisfy our hearts in the deepest and most profound of ways. In our press to love and serve one another as we connect and abide in the love of the Godhead, we begin to scratch the surface of the enjoyment and pleasure we can find in Him and in one another as the layers of fear, our troubled hearts, our selfish ambitions, and our vain conceit (Phil. 2:3) begin to cease cluttering our emotions and weighing down our lives. The joy of a heart that is not weighed down but is truly free to see and enjoy with deep gratitude and humility makes for a delightfully simple and worry-free future.
	**연합**과 **교제** 안에서, 또는 성령님과 형제들과의 교제에서 경험되는 깊은 즐거움과 심오한 기쁨이 있다. 이것은 가장 깊고 가장 심오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만족시킬 수 있다. 우리가 신격의 사랑 안에 연결되고 그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서로에게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여러 층의 두려움, 근심의 마음,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교만 (빌 2:3)이 감정을 어지럽히는 것과 삶을 짓누르는 것을 멈추게 한다. 눌리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보고 깊은 감사와 겸손으로 즐기는 기쁨의 마음은 즐겁고 소박하고 근심 없는 미래를 만든다.
	5. Philippians 2:1-4 is one of Paul’s glorious contributions to the “Trinitarian Conversation” and the means to “*forgetting the things which* (were) *behind him*” to press on towards the goal of knowing Christ Jesus (Phil. 3:12-14), 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fellowship with Him and the fullness of His love. In this manner, Paul’s heart and soul were anchored in something stronger than both the seasons of *lack and persecution* as well as the seasons of *success and wealth*, or contentedness in any circumstance of life (Phil. 4:11).
	빌립보서 2:1-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한 바울의 영광스러운 공헌 중 하나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빌 3: 12-14)은 도구이고, 또한 예수님과의 교제와 그분의 충만한 사랑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처럼 바울의 마음과 영혼은 **형통함과 부요함의 시기,** 즉삶의 어떤 환경에서의 만족될 때나 **궁핍과 핍박의 시기** 때나둘 다의 시즌에서 더 강한 어떤 것에 닻을 내렸다 (빌 4:11).
	6. The movement that Jesus birthed, that would be carried forth by His disciples, was about to be very successful in a manner that would vindicate or justify their sacrifice and the scorn that they had borne by Jewish leadership and beyond. How would they respond in the day of breakthrough, vindication, anointing, and the power of the gospel on full display? The desire of Jesus in the Upper Room Discourse was to equip the hearts of His friends to abide in Him and serve and bless one another in the days of the “success of the movement” and not lose their way with themselves during that success.
	예수께서 일으키신 운동, 곧 제자들이 수행하게 될 운동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 너머로부터 그들이 받은 희생과 조소를 정당화하거나 진실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매우 성공적이려 하고 있었다. 돌파와 정당화, 기름부음,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날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다락방 담화에서 예수님의 갈망은 '운동의 성공'의 날들에 친구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그 안에 거하고 서로 섬기며 축복하며 그 성공 중에 자기 길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7. Success and fruitfulness can be a subtle enemy of intimacy with Christ. We engage now in abiding, speaking continually the things that the Father thinks, feels, and says as we walk with the Spirit who was sent to help us through these seasons. (John 14:13, 14; 15:7; 16:23-24) We talk to the Spirit now so that we can walk with the Spirit amid a multitude of opportunities, demands, expectations, and pressures that come with the season of “more” and great growth and powerful movements of the Spirit on regions and people.
	성공과 결실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의 교묘한 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즌을 통해 우리를 도우러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께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씀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거하는데 참여한다 (요14:13, 14; 15:7; 16:23-24).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성령님의 큰 성장과 강력한 움직임과 “좀 더”의 시즌과 함께 오는 수많은 기회, 요구, 기대, 압력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
3. not alone – the father as the source of peace and joy
혼자가 아니다 – 평강과 기쁨의 근원이신 아버지

32Indeed the hour is coming, yes, has now come, that you will be scattered, each to his own, and will leave Me alone. And yet I am not alone, because the Father is with Me. 33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in Me you will have peace.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John 16:32-33)
32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2-33)

* 1. We labor to abide and engage in the “template of preparation” through the present disappointments and successes to grow in our interior stability and increase our sense of active connection to His presence and leadership over our lives. Are we equipped and prepared to endure and overcome with joy and peace? When pressure comes, what is our current “default” perspective and response? Pressure and success both expose our underlying areas of unbelief, serving to reveal our self-reliance and sense of self-sufficiency. We labor to abide to the measure that we are aware of our great dependency and need for divine supply in every endeavor and initiative.
	우리는 내적 안정을 키우고 하나님의 임재와 리더십을 우리의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감각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의 실망과 성공을 통해 “준비의 본보기”에 거하고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압력이 가해지면 현재 "기본 설정된" 관점과 대응은 무엇인가? 압력과 성공 둘 다 우리의 깔려있던 불신 영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자기의지과 자족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모든 노력과 주도권 안에서 우리의 큰 의존성과 신적 공급의 필요성을 깨닫는 만큼 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We “have enough” and “are enough” in a manner that deceives us into making life work without an increased activity of the Holy Spirit releasing wisdom, spiritual understanding, insight, clarity, transformed emotions, desires, and perspective. We settle for significantly less on a continual basis because we have rarely touched or acknowledged “how much more” there is to experience and enjoy in the divine resource that comes by abiding in our weakness in His boundless supply. In that regard, we have become “used to” engaging in our faith alone, unaware of how costly our barrenness will be during the storms and troubles that are just ahead.
	지혜, 영적 이해, 통찰력, 명료함, 변화된 감정, 욕망, 관점을 풀어주는 성령님의 증가된 활동 없이 우리는 “충분히 가졌고” 그리고 “충분하다”라는 방식은 우리를 미혹되게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훨씬 덜 만족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분의 무한한 공급 안에서 거함으로써 오는 신성한 자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데 “얼마나 더” 있는지 거의 알지도 경험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는 바로 앞에 닥칠 폭풍과 고난 중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한 체, 단지 우리의 믿음에만 몰두하는데 “익숙”해졌다.
	3. We want to build a life that refuses to be alone with our troubles or forced to sustain and maintain our own successes achieved apart from God’s will or grace operating in our lives. In the days of the “common and the mundane” before the days of promise and persecution, we want to labor now to build a life of abiding, connecting, and engaging in active conversation that touches our mind and awakens our heart. We can be settled and content today as we walk out the template that Jesus has given us, and in doing so we can be confident in trials that we are not alone. **We will carry our history in God with us** into our next trial or point of pressure and difficulty.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를 거부하는 삶 혹은 우리 삶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은혜에서 떨어져 자신의 성공을 유지하고 유지하도록 강요 받는 삶을 거부한다. 약속과 핍박의 시대 전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는 활발한 대화에 거하고, 연결하고, 참여하는 삶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길 원한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을 따라 나가면서 안정되고 만족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 시련과 압력과 어려움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역사를 쓰며 나아갈 것이다.**